

“한국당 뺀 野 공조해 예산확정... SOC 사업 조기추진”

與-건설업계, 현장간담회

내년 예산 13% 늘린 22.3조 반영 생활 SOC에 3년간 48조 투자계획

더불어민주당은 3일 건설업계와 만난 자리에서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투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필요성에 뜻을 함께했다. 민주당은 다른 야당과 공조해서라도 정부 발표 SOC 사업을 조기에 추진하도록 정기국회 내에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업계와의 정책간담회’에서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며 이같은 방안을 밝혔다.

이 대표는 “경제 활력과 민생 안정을 위한 건설업계의 역할이 워낙 크기에



3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건설업계 정책간담회에서 이해찬 대표가 업계 관계자와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간담회에) 참석했다”며 “문재인 정부는 경기부양용 토목공사를 하지 않을 뿐 꼭 필요한 SOC 건설에는 더 과감히 투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올해 초 24조원 규모의 SOC 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으로 지정했고, 내년도 예산에도 SOC 부문은 올해 대비 13% 늘린 22조3000억원을 반영했다. 생활 SOC 사업에는 3년

에 걸쳐 48조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정부가 역점에 둔 SOC 사업 중 예타 면제 사업 지역에 있는 건설업계가 반드시 컨소시엄(조합)에 참여하도록 제도화시킨 것이 중요 성과”라며 “반드시 지역 업체가 참여하도록 하겠다”고 공언했다. 조정식 정책위원회 의장은 “정부가 발표한 SOC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예산 심의를 조만간 확정하겠다”며 “논의한 건설산업 및 지역 발전 주요 사안은 당정협의를 개최해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 의장은 “정부가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등이 일부 대기업에 돌아가면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며 “당정은 지역이 공동발전하는 여러 방안에 대해 정책적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선호 국토교통부 1차관은 “건설경기는 2018년부터 시작된 조정 국면이 이어지고 있어 정부가 활력을 불어 넣을 방안을 적극 강구하고 있다”며 “광역교통망 개선과 노후 SOC 유지보수, 도시재생사업 등 공공부문 투자를 크게 확대하고 있고 스마트건설기술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장은 “생활형 SOC와 노후 인프라 개선에 대한 정부 투자는 국민안전과 복지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이날 지역 인프라 투자를 선도할 건설프로젝트로 총 367조5595억원 규모의 589개 사업을 선정, 제안했다. 연구원 제시안은 ▲화순·나주·장흥 생물의약산업벨트 ▲충북 바이오 국가산업단지 ▲제주형 국가 첨단 식품 클러스터 ▲충남 축산 클러스터 ▲광주 창업기업 성장지원센터 ▲충남 온천 헬스케어 힐링산업 실증센터 ▲전북 KTX 익산역 복합환승타운 조성 ▲경기 박달 스마트시티 등이다.

서울 지하철 2호선(잠실~신도림) 복층 급행열차화, 강변북로 지하화(양화대교~반포대교), 경기 오산역~동탄트램 도입, 경인고속도로 지하화(문학~서인천) 등 교통 대책도 포함한다.

이상호 건설산업연구원장은 “선정된 사업을 모두 추진하면 실질 경제성장률이 0.17%포인트 증가하고, 연평균 취업 유발인원은 14만명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석대성 기자 bigstar@metroseoul.co.kr

文 한마디에... 한국당, 공수처 반대 총공세

대통령 “필리버스터, 법 악용” 발언 나경원 “대통령, 갈등 부추겨” 공세

자유한국당은 정국경색의 탓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리며 ‘신속처리안건(패스트 트랙)’ 처리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됨에 따라 한국당의 공세 수위는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3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든 난맥의 원인 제공자는 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집착을 놓지 못하는 문 대통령”이라며 “갈등을 풀어야 할 대통령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공세를 퍼부었다.

나 원내대표의 이같은 발언은 전날 문 대통령이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두고 “국회 선진화를 위한 법을 후진적 발목잡기 정치로 악용하는 현실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작심 비판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한국당은 최근 불거진 ▲유재수 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운데)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검찰 무마 의혹 ▲ 지난해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청와대의 김기현 울산시장 선거 불법개입 의혹 ▲ 우리들병원의 고액대출에 대한 친문 인사의 관여 의혹 등을 고리로 대어투쟁 수위를 올리고 있다.

한국당은 특히 지난 1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이 숨지자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을 제기하며 ‘공수처는 대통령의 권력남용 도구’라고 부각하고 있다.

나 원내대표는 최근 기자회견에서

“공수처가 만들어지면 사건을 가로채 그 안에서 뭉개고 덮어버릴 것이 뻔하다”며 “친문무죄 반문유죄 세상을 만들기 위한 야욕”이라고 강조했다. 정권에 저항하는 모든 세력을 공수처 칼로 공격하고, 굴복시키면 결국 국민은 침묵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다는 게 나 원내대표 설명이다.

현재 검찰은 숨진 수사관이 근무했던 이른바 ‘백원우 별동대’가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산하 특감반의 권한을 넘어 김 전 시장에 대한 첩보를 위법하게 수집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석대성 기자 bigstar@

“무너진 협상력 복원, 한국당 다시 세울 것”

강석호, 차기 원내대표 경선 출마 선언

강석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3일 “무너진 원내 협상력을 복원하고, 국민께 인정받는 수권 야당으로 한국당을 다시 세우겠다”며 차기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대와 투쟁이 야당의 특권일 수는 있지만, 야당의 진정한 무기는 기술적·전략적 협상이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의원은 “(나경원) 원내대표 임기(종료)가 불과 1주일 앞으로 다가온 지금 이 순간에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선거제 개편 ‘패스트 트랙(신속처리안건)’을 눈앞에 두고, 우리 당은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다”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인해 여당은 협상의 당사자인 우리 당을 배제하고라도 게임의 룰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검찰은 연일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하며 패스트 트랙 충돌 기소를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감행할 태세마저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석대성 기자

과기부, 디지털 변혁의 현재·미래상 살핀다

오늘 과학기술정보통신 국제 컨퍼런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일 서울 코엑스에서 ‘M.A.G.I.C.: 미래를 변화시키다’를 주제로 ‘2019년 과학기술정보통신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M.A.G.I.C.은 ‘모빌리티(Mobility), 인공지능(AI), 5G,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Cloud)’를 뜻한다.

이번 행사는 디지털 변혁을 선도하고 있는 주요 신기술을 중심으로 디지털 변혁의 현재와 미래상을 살피고 우리가 대응해야 할 방향을 함께 모색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특히 디지털 미래상에 대한 유명 인사인 파라그 카나 및 브렛 킹을 비롯해 디지털 변혁을 이끌고 있는 다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KT, LG, 스마트팩토리 연구소 등 전문가들이 연사로 나서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새로운 미래상과 도전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컨퍼런스는 2005년 이후 15회째 개최되며, 디지털화의 글로벌 동향을 공유하고, 주요 의제에 대한 협력적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으로서 자리잡고 있다.

/채윤정 기자 echo@



공군 최초 여성 비행대대장. 왼쪽부터 편보라(40) 중령, 장세진 중령(40), 박지연 중령(40) /공군

공군최초 여성 비행대대장 3명 탄생

편보라·장세진·박지연 중령

공군은 3일 여군 최초 비행대대장이 3명이 탄생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공군사관학교 49기 동기생들로, 공사 최초 여성도로 1997년 입교해, 2002년 고등비행교육을 수료했다.

공사 출신자들 사이에서도 악바리로 통했던 주인공들은 제3훈련비행단 236 비행교육대대장 편보라 중령(40), 제5공중기동비행단 261공중급유비행대대장 장세진 중령(40), 제16전투비행단 202전투비행대대장 박지연 중령(40)이다.

고등비행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여성 최초 빨간마후라를 목에 걸어 온 장세진 중령은 3일, 편보라 중령과 박지연 중령은 이날 각 각 비행대대장에 취임한다. 비행대대장은 비행대대의 지휘관으로서, 작전과 훈련을 감독하고 조종사를

비롯한 부대원들을 이끄는 막중한 직위다. 이 직위는 근무경험 및 평정, 군사교육 등 개인 역량과 리더로서의 인격 및 자질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발한다.

편보라 중령은 2003년 공군 최초 여성 전투조종사가 되어 제8전투비행단에서 A-37 공격기를 조종했다. 2004년 보라매 공중사격대회 저고도사격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 보라매공중사격대회 최초 여성 수상자가 됐다.

편보라 중령은 3훈련비행단 236비행교육대대장으로 취임하면 국산훈련기 K T-1으로 후배 조종사를 양성하게 된다.

장세진 중령은 여성 최초 수송기 조종사로 CN-235 수송기를 조종했고, 2006년 여군 최초 수송기 정조종사가 된 이후 2015년 보라매 공중사격대회 공중투하부문에서 여군 최초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문형철 기자 captinm@